

『소통 없는 공동저작, 한국정치사상사 저술의 문제점』

(이재석 외 『한국정치사상사』, 집문당, 2002,
김영국 외 『한국정치사상』, 박영사, 1991)

박 현 모*

토착적 정치학, 한국적 정치학 또는 자아준거적 정치학이 논의되면서도 정치학은 여전히 외국학문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 연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 김영국, 「역사연구와 정치학」¹⁾

I.

이 글은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출판된 두 권의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서를 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적 변화 내지 발전 양상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1991년에 출판된 『한국정치사상』(이하 『사상』)의 대표 저자인 故김영국 교수는 정치학의 정체성(identity)과 관련해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긴요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정치학은 구미사회에서 비롯된 학문이다. 따라서 정치학의 이론은 거의가 서구사회라는 ‘특수’를 바탕으로 해서 추출되고 추상화된 ‘보편’이며, 이들 이론의 적실성(relevance)은 본질적으로 이들 서구사회의 제 현상에 대한 설명과 처방에 치우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러한 외부의 ‘보편’을 도입해와 우리의 ‘특수’에 기계적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정치학

1) 『한국정치학회 소식』 제23권5호(1999.12.28).

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외국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한계를 넘어 “한국적 정치학 또는 자이준거적 정치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연구의 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어떻게든 집단적 소명감을 갖고서 시작은 해야 한다”면서 『사상』의 출간을 계획했음을 밝히고 있다(『사상』 서언).

김영국 교수는 『사상』이 이처럼 ‘집단적 소명감’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한국정치사상사로서 많은 한계와 빈 공백이 있음을 인정하고, “후속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차츰 메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그로부터 11년만에 출간된 『사상사』의 대표저자는 “한국정치사상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가 점증하여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과 질에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사상사』 3쪽)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상』이 출간된지 11년 사이에 ‘역사적 연구의 뿌리’는 어느 정도나 튼튼해졌는가? 그리고 ‘한국정치사상사로서 공백과 부족한 부분은 얼마만큼 메워졌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사상사』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후자, 즉 공백과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메워졌지만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사상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그 부정적 결과의 원인으로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 대한 무관심, 공동연구자들 사이의 대화와 교류의 단절, 그리고 연구대상 기준의 어설픈 설정을 지적하고 이를 차례로 논증하고자 한다.

II. 비교

먼저 『사상』과 『사상사』는 모두 총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그 목차와 필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정치사상』(박영사, 1991)

- 「유교국가주의와 그 대두과정」(손문호) 「조광조의 유교적 개혁주의」(손문호) 「

정조조의 천주학비판(김홍우)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정치적 역할」(김영수)
 「최익현의 경장론」(김갑천) 「갑오농민혁명운동의 정치적 지향」(정기영)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김영국) 「일제하의 여성운동」(전미영) 「조소앙의 삼균주의」
 (김용호) 「해방정국에서의 주도권 논쟁」(심지연) 「안재홍의 해방전후사 인식과
 ‘조선정치철학’적 처방」(정운재) 「유신체제하 반체제운동의 이념적 기초」(손학
 규) 「'80년대 한국학생운동」(최문성) 「'80년대 한국의 민주화과정」(임혁백) 「
 주체사상의 전개」(김연각) 「주체사상에 대한 평가와 쟁점」(손호철)

○ 『한국정치사상사』(집문당, 2002)

- 「‘단군신화’와 정치적 사유」(김석근) 「삼국 및 남북국 시대의 정치사상」(김석
 근) 「‘훈요십조’와 ‘시무28조」(김석근) 「고려말 조선초기의 정치사상」(김영수)
 「삼봉 정도전의 정치사상」(부남철) 「정암 조광조와 사림의 도학정치사상」(부
 남철) 「퇴계 이황의 정치사상」(김명하)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배병삼) 「우암
 송시열의 정치사상」(이영춘)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배병삼) 「혜강 최한기
 의 정치사상」(안외순) 「척사위정론자의 정치사상」(이재석) 「개화파의 정치사
 상」(이원영) 「동학의 정치사상」(오문환) 「소앙 조용은의 삼균주의 정치사상」
 (정용대) 「백범 김구의 정치사상」(정경환)

여기서 나타난 두 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루고 있는 대상시기에 있어서 『사상』이 고려말에서 1980년대까지인데
 비해, 『사상사』는 고조선에서 1940년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사상』은 주로 개항기
 와 해방 이후의 시기에 많은 지면을 할당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김영국 교수는
 “하나의 역사로서 사상사를 다루는 의미는 그것이 ‘현재진행중인 정치공동체 안
 의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사
 상』의 제1장에서 신라육두품 관료와 무신집권기 신흥관료들의 유교국가주의가 개
 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려말 이전의 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전기와 후기에는 각각 1 개의 장이
 할당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개항기의 경우 4 개의 장이,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8 개의
 장이 주어졌다.

이에 비해 『사상사』에서는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기간에 4개의 장을 할애했으며, 조선조의 경우에도 전기와 후기를 망라하여 총 7개의 장을 할당하고 있다. 개항기에는 3개의 장을,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2개의 장을 할당하고 있다. ‘현대’보다는 주로 ‘전통’ 시기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두 저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 또는 대상인물에 있어서 『사상』이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데 비해, 『사상사』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상』은 ‘유교국가주의’ ‘유교적 개혁주의’ ‘천주학비판’ ‘경장론’ ‘갑오농민혁명운동’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 ‘여성운동’ ‘해방정국에서의 주도권 논쟁’ ‘유신체제하 반체제운동의 이념적 기초’ ‘80년대 한국학생운동’ ‘80년대 한국의 민주화과정’ ‘주체사상’ 등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상사』는 ‘단군신화’ ‘훈요십조’ ‘시무28조’ ‘동학’ ‘삼균주의’ 등 몇몇의 정치적 주제 및 이슈를 다룬 경우도 있지만, 그 비중은 인물연구에 있다. 즉 ‘정도전’ ‘조광조’ ‘이황’ ‘이아’ ‘송시열’ ‘정약옹’ ‘최한기’ ‘척사위정론자’ ‘개화파’ ‘조용은’ ‘김구’ 등 개별 사상가의 정치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두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조광조·동학·조소앙을 다루고 있는 데, 『사상사』의 저자들이 『사상』의 해당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셋째, 집필자의 구성 및 전공 분야의 비교이다. 『사상』에는 15인의 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집필자 전원이 정치학 전공자이며 이들 중 다수는 현대의 한국정치를 주로 전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상사』에는 1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정치학 외에도 역사학 전공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전통시대 정치사상을 전공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의 필진만이 두 저서에 다 같이 참여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사상』에서 다룬 것과 무관한 주제와 시기를 『사상사』에서는 집필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상』과 『사상사』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연속성이나 발전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제나 인물 선정과정 및 집필의 목적에 있어서도 저서와 저서 사이에, 그리고 저서 안의 각 글들 상호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다.

III. 쟁점

『사상』과 『사상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시대의 한국정치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불교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것이다 먼저 손문호는 “불교가 사상계를 풍미했던 신라나 고려를 불교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념이다. 그러나 사상계의 일반적인 동향과 통치이념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면서 “신라나 고려의 경우도 통치이념은 어디까지나 유교였다”고 주장한다(『사상』 2 쪽). 손문호에 따르면 “불교국가라면 종교로서의 불교세계가 정치세계와 경쟁하거나 동일시되는 국가여야 한다. 승려가 정치를 주도하고 승단의 위계가 국가질서를 대체하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사상』 2 쪽). 이에 반해 김석근은 “삼국시대의 불교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라나 고려의 경우도 통치이념은 유교’라는 손문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김석근은 최병현의 입장에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그 자체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초국가적 종교”였지만 “중국불교에 있어서는 왕주교종(王主敎宗)으로 바뀌었으며, 한국 불교에 와서는 그러한 경향은 일층 강화되어 국가와 불교는 완전히 유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사상사』 46 쪽). 나아가 그는 “왕실이나 귀족들에 의한 대가람이나 대불상은 민중지배의 도구”로써 이용되었는 바, ““순수한 종교”에 살짝 가리워져 있는 ‘정치적인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상사』 45 쪽). 요컨대 김석근은 신라와 고려의 경우 ‘불교는 사상계를 지배했고 유교는 통치이념으로 역할했다’고 간단히 단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컸다는 것이다.

둘째, 김석근은 “조선시대에서는 유교가 사상사를 지배했고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었다”(『사상』 2 쪽)는 손문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손문호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유교국가주의는 그간의 정치사상사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즉 “유교국가는 중엽 이후의 삼국,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 완숙을 보게 되는 바, “육두품 출신 관료들 중심의 신라 유교국가주의, 귀족적 관료들에 의해 제시된 고려초기의 유교국가주의, 무신집권기 신흥관료들의 유교국가주의,”(『사상』 3 쪽) 그리고 “성리학적 유교의 세례를 받은” 고려말 신흥

사대부들의 유교국가주의”가 그것이다(『사상』 13쪽, 3쪽). 이에 반해 김석근은 “삼국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서구사회 기독교의 충격을 받기 이전에는, 민간신앙·유교·불교·도교 등이 ‘사상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서로 다를지라도 혼재(혹은 동거)해온 것이 실상에 더 가깝다’면서 “사상계의 중층구조”의 관점에서 조선조의 정치사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유교(주자학)를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로 삼은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불교, 도교, 민간신앙은 여전히 존재했다.”(『사상』 43쪽). 요컨대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유교가 사상사의 ‘주선율’을 이루었다면,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은 각각 ‘보조음’과 ‘지속저음’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김석근의 주장이다.

IV. 한계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상』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공동집필된 최초의 ‘통사’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끌었고, 몇몇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정치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사상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상』에 대한 검토(review)는 물론이고 그 같은 책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광조·동학·조소앙 등은 두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상』의 내용이 『사상사』의 저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 내지 방치되고 있다. 아예 참고문헌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물론 『사상』에서 쓰여진 것이 학문적 관점에서 도저히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면 그 무시와 방치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사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10년 후에 쓰여진 『사상사』의 내용 사이에 어떤 변화나 발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사상사』에서 다루어진 「정암 조광조와 사람의 도학정치사상」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조광조의 생애’ ‘도학정치이념’ ‘개혁정치’ ‘언론정치’ 등은 『사상』의 「조광조의 유교적 개혁주의」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²⁾ 『사상사』의 「소앙

2) 『사상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면 ‘중종이 조광조를 제거한 이유’이다. 즉 “중종이 원한 것은 성리학적 세계관 그 자체보다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한 군주권의 안정이었다”는 것이다(『사상사』 13쪽).

조용은의 삼균주의 정치사상」 역시 『사상』에서 다루어진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즉 ‘삼균주의의 전개과정’ ‘삼균주의의 이론체계’ ‘제3의 이데올로기로서 삼균주의의 평가’ 등은 10년 전에 쓰여진 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며 (‘독립운동시기의 정치사상 개관’ ‘삼균주의 이론체계’ ‘삼균주의 평가’),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에서 빈곤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정치학연구를 도외시하고 ‘정치학자 중에서 처음 쓴 것처럼 접근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³⁾

둘째, 선정된 대상 및 그 범위에 대한 기준의 불분명함이다. 『사상』의 서언에서 대표 저자는 정치사상사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크로체의 말을 언급하면서 “동양 또는 한국정치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현대’의 사상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사상』 ii)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상』은 “고대·중세보다도 근대와 현대에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당했다.”(특히 해방이후의 시기에 절반을 할당). 그런데 인물 및 주제를 설정한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해방 이후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조소앙·안재홍의 정치사상은 다루면서도 김구·이승만·박정희·장준하·함석헌 등의 정치사상은 왜 다루지 않았는지? 주체사상에는 2개의 장을 할당했으면서 왜 박헌영·여운형 등은 다루지 않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사상』은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상사』의 대표 저자는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민국 건국시기까지의 각 “시대를 특징짓는 사유체계나 사조, 그리고 주요 인물의 정치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다”면서 이 책이 “통사적 연구, 고려 말까지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교 이외의 다른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사상사』 3~4쪽)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정 대상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

상사』 197쪽).

- 3) 예컨대 『사상사』의 공동저자의 한 사람인 안외순은 “서구근대의 민주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최한기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학계에는 이러한 사실이 별로 소개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특히 주목하는 민주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국사학계의 권오영(1991)이 [...] 소개한 것이 유일한 듯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선에서 서구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인 최초의 예”인 최한기와 그의 『지구전요』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2쪽에 걸쳐 정치학계에 최초로 소개한 것은 정용화의 논문(1998)이다. 안외순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정용화, 「조선에서의 입헌민주주의 관념의 수용: 18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 2호(1998년 여름).

복해보겠다는 ‘의욕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까지는 문헌의 부족으로 개별 사상가별로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 조선 이후로는 풍부한 문헌이 있으므로 개별 사상가를 통해 그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할 수 있[대]” 이 때문에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는 그 시대의 사유체계나 사조를 중심으로, 조선조와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 건국기까지는 개별사상가의 정치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사상사』 4쪽)는 말은 곧 공동 저자들이 어떤 공통된 기준 없이 한국정치사상사를 출판했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해서, 원효·의상 등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주요한 ‘개별 사상가 들을 다루고 있는 한국철학사 등의 연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대한민국 건국기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유체계나 사조’가 없다는 말인지, 그리고 문헌이 풍부한 ‘현대 의 인물들은 왜 다루지 않았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같은 기준의 불명확성과 자의성의 결과로서 발생한 각 장별 연관성 결여이다. 『사상』의 대표저자는 “각 장 상호간의 유기적 맥락이 군데군데 단절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대표저자는 유교국가주의, 유교적 개혁주의, 위정척사론, 반유학적 경장론 등의 개념을 들어서 “최소한의 상호 연관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최소한의 상호 연관성조차도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금방 알게 된다. 실제로 『사상』의 1·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교국가주의’라는 주제는 그 이후의 어떤 장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시대와 개항기의 여러 쟁점들이 해방 이후 어떻게 단절 내지 지속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바로 뒤의 저자가 앞장을 읽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분야만 기술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절성 문제는 『사상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동일 저자가 쓴 두 개의 장에서조차도 바로 앞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삼봉 정도전의 정치사상」 다음에 이어지는 「정암 조광조와 사림의 도학정치사상」에서는 앞에서 다룬 정도전의 ‘임금을 바르게 함 格君’과 ‘간관론’ 등의 내용이 나올 법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다루는 장에서는 바로 앞장에서 다룬 송시열의 정치관 및 그 앞의 이황과 이

이의 정치사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하고 이들과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저자는 공자와 정약용의 관계 및 주자와 정약용의 관계에만 대부분의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와 동학을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장에서는 바로 앞뒤 장들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앞뒤 저자들의 주요 선행연구조차도 참고문헌에서 누락시키는 등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공동집필’이라 할 때의 ‘공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지며, 마치 고독한 군상들이 쏟아내는 독백들을 보는 듯한 느낌조차 갖게 된다.

V. 대안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한국정치사상사』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선행연구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글이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그 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정치사상연구자들은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는 밝히면서도 정치학자들의 선행연구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치학자들이 수행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지 않는 한 동일한 내용만을 무한 반복하는 잘못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정치학회보』를 비롯한 주요 정치사상 관련 학술지와 대표적인 한국정치사상사 저서들에서 논의된 주제와 그 핵심 내용만이라도 반드시 요약하는 절차를 거칠 때 한국 정치사상 연구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표저자와의 학맥이나 인맥에 의해 임의적으로 공동 필진을 구성하는 현 단계의 문제점을 벗어나야 한다. 그 시대와 해당 인물에 관한 주요 논문이나 저작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 있는 저자를 선정하되, 가능한 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정된 대상 및 그 범위에 대한 엄밀한 기준 제시와 ‘통사적 저술의 신화’로부터의 탈피이다. 지금은 “이 책은 다만 우리의 의욕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물일 뿐”이라는 말로 자기 위안을 삼거나, “한국정치사상사의 전모를 그려내려고 했음

에도 불구하고, 통사가 아닌 논문집의 형식”에 머물고 말았다는 변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책 출간 직전에야 어정쩡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라고 발뺌을 할 정도로 한국정치사상은 여유롭지 못하다. 『사상』이 출간된 지 10여년이 지난 다음 출판된 『사상사』에서조차 “논문집의 형식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학계의 안이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⁴⁾ 차제에 필자는 이른바 ‘통사적 연구’에 집착하는 우리 학계의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한국정치사상의 시원에서부터 현대정치사상에 이르기까지의 그 저변에 흐르는 고도의 일관성”을 발굴해내고, 각 시기를 넘어선 “진정한 한국정치사상의 원류”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사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금 한국정치사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각 시대의 품미했던 ‘정치언어들’을 찾아내는 일이다.⁵⁾ 자신의 주장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그것을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언어와 논리를 주요한 논쟁을 중심으로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급선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제적 연구와 같은 분야의 학자들과의 교류 및 소통의 중요성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자들은 학제적 연구나 시대를 넘어선 학자간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동시대 학자들간의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소한 공동으로 책을 집필할 경우라도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 안에 다른 저자의 주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시켜야만 한다. 나열된 독백 내지 “논문집 형식”을 벗어나지 않은 한국정치사상사 저술은 그 동안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글의冒頭에서 앞장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4) 이렇게 볼 때 한국·동양 정치사상사학회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회에 걸쳐 ‘통사적 한국정치사상사 교재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 세미나의 발제자들은 지난 세미나의 쟁점을 요약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 세미나를 시작하는 듯한’ 발표를 반복함으로써 진전된 논의전개나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정치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강광식, 「정치사상사 연구의 대상과 방법: 한국정치사상사의 학문적 정체성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제4차 정례학술대회 발표문(2002.11) 참조.

그것과 자신의 글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지적하게 하고, 글의 끝부분에서는 다음에 이어질 장의 내용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의 전체 내용을 공동 저자 모두가 여러번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저자의 리더십 발휘야 말로 좋은 한국정치사상사 저술을 위해 필요한 관건이라 생각한다.